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

'25. 11. 18.(화) 14:00~  
생활문화센터

---

# 장보고대사 제1184주기 추모다례제 헌사

---



완 도 군 의 회

# 현 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곳 완도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 제1184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추모 다례제를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 **박봉옥**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에도 오늘 함께하여주신 **신우철**  
군수님,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님,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보고 대사께서는 1,200여 년 전, 이 바다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북아 해상무역을 열어젖힌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리더이자 해양 개척자였습니다.

또한 무역과 외교, 문화와 질서를 아우르며 바다를 통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올리는 헌다와 헌화, 그리고 헌시 낭독은 대사에 대한 추모를 넘어 장보고 정신을 오늘의 완도에 다시 이어놓는 신성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 자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민들과 기관·단체, 그리고 학생들은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지역의 자긍심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완도가 앞으로 나아갈 힘이자, 가장 큰 유산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청해진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빛내고 완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해양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장보고 대사님, 오늘 이 추모의 제례를 받으시고 완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바다를 넘어 세상을 품으셨던 그 정신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